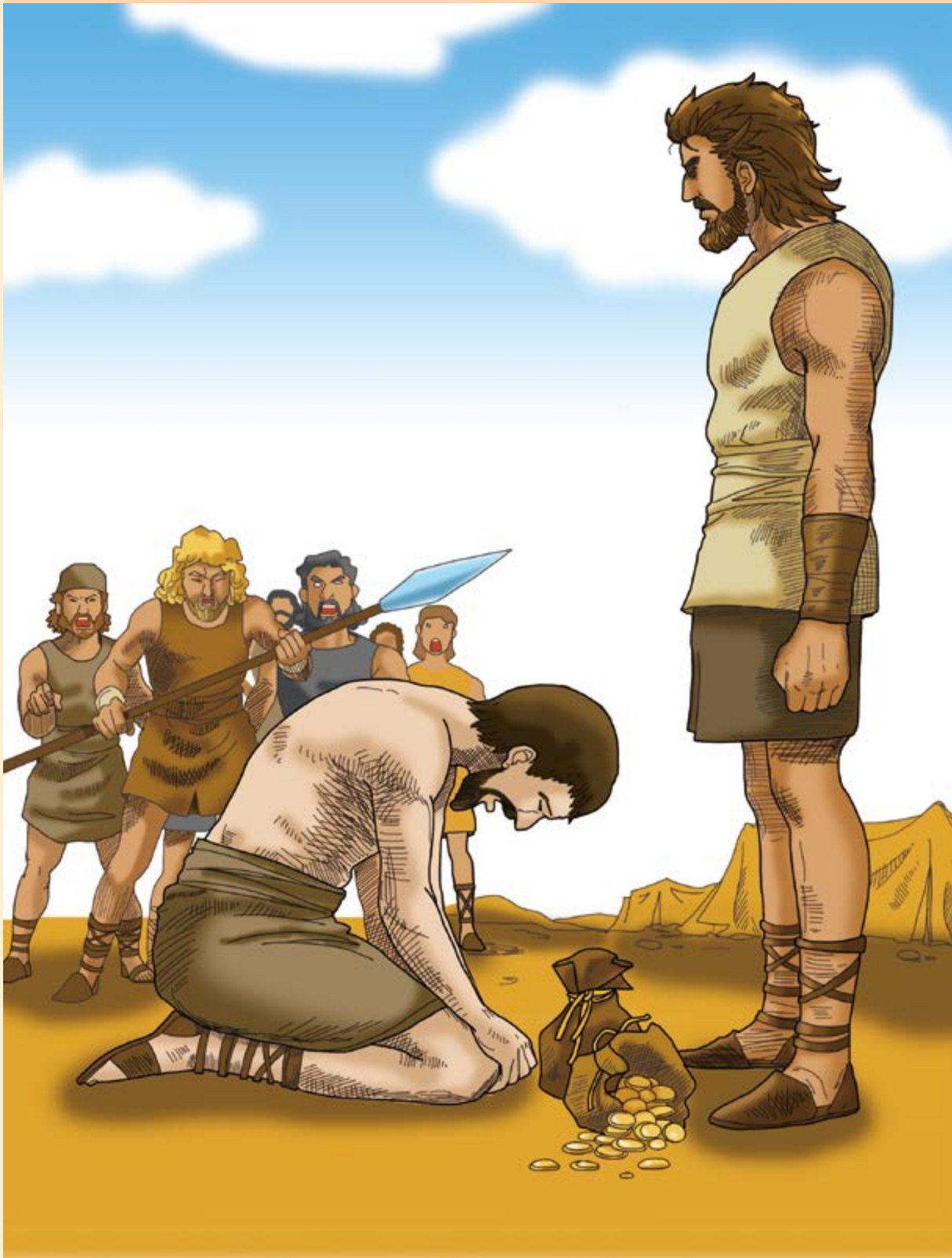


34 아간의 범죄

여호수아 7:1~8:29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노략한 물건 중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이백 세겔의 은과 오십 세겔의 금을 훔쳐서 몰래 숨겼다고 자백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여호수아는 베엘 동편에 있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 후 돌아온 사람들은 아이성 사람들의 수가 적으므로 적은 수로 공격하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3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36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슬프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패했습니다.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세상에서 없애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내게 바치기로 한 물건을 도둑질하여 숨겼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몰래 훔친 물건을 없애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이기지 못하리라.”

성 경 암 송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13)

“아침에 너희가 내게 가까이 나와 제비뽑기를 하면 물건을 훔친 자를 밝혀내리니
뽑힌 자와 그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비뽑기를 하였는데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 중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노략한 물건 중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이백 세겔의 은과 오십 세겔의 금을 훔쳐서 몰래 숨겼다고 자백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가족과 아간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아간의 모든 소유물을 돌로 치고
불사른 후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¹¹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안의 죄를 없앤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공격하여 아이성을 차지했습니다.

¹¹아골: 괴로움



이스라엘의 패배와 승리



이스라엘이 첫 번째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



아간의 죄는 어떻게 드러났나요?



아간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간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할 때까지도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아간은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13)



아간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처럼 우리가 짓는 작은 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다음 영신이의 이야기를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지호는 작년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호와 같이 교회에 다니던 민준이는 어린이 천국잔치 때
 같은 반 친구인 성욱이를 전도하였습니다.
 주일에 민준이는 성욱이를 데리고 교회에 같이 나왔습니다.
 성욱이는 지호와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지호는 평소처럼 성욱이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서
 성욱이가 가져온 게임기를 몰래 숨겼습니다.
 이것을 안 성욱이가 지호에게 화를 냈습니다.
 지호도 같이 화를 내며 성욱이와 싸웠습니다.

그러자 성욱이는 화가 난 채로 집으로 가 버렸습니다.
 교회에 말씀 듣기 위해서 처음 온 친구들은 이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오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지호처럼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한 경험이 있으면 적어 보세요.



여러분이 지호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자기를 살피고 우리에게 오는 죄의 유혹들을 이겨야 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9:12)



알아볼까요



욕심을 부리면 망해요

돈 많은 어떤 부인이 사고로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치료를 받기 위해 집으로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치료보다는 부인의 집에 있는 고급 가구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료하는 동안 부인의 눈을 붕대로 감아 놓고 가구를 하나 둘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치료가 끝나고 부인의 눈이 거의 회복되자,
 의사는 부인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절대로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둘은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눈이 다 나오면 치료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나 지난 지금 제 눈은 더 나빠졌어요.
 치료받기 전에는 집에 있는 가구가 어렴풋이나마 보였는데,
 치료를 받을수록 가구가 보이지 않더니 이제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눈이 더 나빠진 게 아니겠어요?”



부인의 말에 결국 의사의 도둑질은 들통나게 되었고,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가게 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욕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침내 패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부모님난

선생님난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